



## 화단 및 식용 산마늘 재배 이용기술

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 and Edible Plant of  
*Allium victorialis* native to Korea.

한때 신선한 잎 몇 장에 몇 천원씩으로 호가하던 식물이다. 산마늘은 예로부터 자양강장제로 알려져 있으며, 2-3년전 중국에 싸스피해가 창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마늘 종류를 섭취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홍보되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산마늘은 울릉도에서는 명(命), 또는 멩이나물이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수도승이 즐겨 먹는다 해서 행자마늘이라고도 하고, 중국에서는 각충(蒼蔥)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는 시베리아, 중국, 한국, 일본 등에 자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 오대산, 지리산의 고산지대 및 울릉도의 숲속에서 자란다. 산마늘은 잎, 줄기, 알뿌리 등 식물체 전체를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잎의 질감이 좋아 정원의 봄에 햇빛을 충분히 받아 따뜻하고 여름에는 웬만큼 그늘지는 시원한 곳에 심어두면 관상용으로도 좋다. 전원주택 같은 곳에서 식용 또는 관상용으로 심어두면 훌륭하다.



### 송 정 섭

농업연구원, 이학박사  
(031-290-6159,  
songjs@rda.go.kr,  
www.wildflower114.com)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DA)



〈그림 1〉 이른 봄 산마늘의 잎 출현

### 1. 생리생태 및 이용

산마늘은 백합과에 속하는 알뿌리 식물로 우리나라에는 단 한 종이 분포하지만 자생하는 지역에 따라 생태형이 다르게 분화되어 있다(그림 2).

종자는 파종당년에는 출아하지 않고 지하에 작은 인경만을 형성하며, 다음해에 작은 긴 잎이 한 장 나오고, 그 다음해(파종후 3년차)에 잎이 2장 나온다. 성숙한 구를 심어도 정식 후 몸살을 하느라 다음 해에 엽수증가가 크지 않으며,

이식 3년째가 되어야 초세가 커지고 엽이 2장 이상 나오며 꽃대가 나와 개화한다. 과종후 성숙주가 되기까지 3~4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며, 5년은 지나야 본격적으로 잎을 따서 쓸 수 있다. 한번 잎을 수확하면 2~3년은 지나야 다시 수확할 수 있다. 산마늘을 식용으로 이용할 때는 인경, 잎, 꽃 등 식물전체를 이용할 수 있다. 즉 3~6월까지의 어린 싹에서부터 잎이 굳어지기 직전까지 잎줄기 등을 이용하고 뿌리와 인경은 일년 내내 이용할 수 있으며 꽃과 꽃봉우리는 6~7월에 따서 쓴다. 미네랄과 비타민이 많고 살균작용이 있으며 생채쌈과 목나물 등으로 이용된다. 또한 자양강정, 이노, 정장, 피로회복, 감기, 건위, 소화 등에 약효가 있다. 전골과 간장절임에 대단히 맛이 좋고 원기를 북돋는다.

## 2. 재배기술

### 가. 재배적지

봄에 햇빛을 충분히 받아 따뜻하고 습기가 있으며, 여름에는 그늘지고 시원하면서 습기가 있는 곳이 좋고, 가을에도 따뜻한 곳이 좋다. 특히 산마늘은 저온성이기 때문에 평지처럼 여름철이 고온인 곳에서는 재배가 곤란하다. 토양은 낙엽이 잘 퇴적되어 있는 비옥한 곳이 좋고, 보수력과 배수가 좋은 약간 경사진 곳이나 사질양토가 적합하다.

### 나. 번식

번식은 종자번식과 알뿌리나누기가 이용되는데, 대량으로 증식할 때는 종자번식이 좋다.

○ 파종 : 7월 중하순에 과실이 벌어지고 과실



오대산종



울릉도종

### 〈그림 2〉 산마늘 자생지 생태형별 생육광경

색이 엷게 되기 시작할 무렵에 까만 종자를 채종하고 바로 노지에 뿌리는 것이 발아율이 가장 높다. 과종시기를 놓쳤으면 종자를 물에 흠뻑 침적

시킨 다음 형질자루에 넣고 섭씨 2~5℃의 냉장 고에 1개월 정도 넣어 두었다가(휴면타파) 파종 한다. 별도의 파종상에 뿌릴 경우 저온(5℃)에



〈그림 3〉 산마늘의 열매 모습



〈그림 4〉 산마늘의 종자 모습

20일간 저장해 두었다 꺼내 20℃의 암조건에서 두는 것이 발아율이 높다.

○ 알뿌리나누기 : 정식모본으로 쓸 수 있는 개 체만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쉽게 이용할 수 있

는 방법이다. 보통 3년생부터 분구가 시작되는데 보통은 1구에서 2구로, 2구에서 4구로 대략 배수로 증가되며 묵은 포기가 되면 원포기의 두 배 가깝게 불어나므로 이것을 쪼개 심으면 된다. 알뿌리 나누는 시기는 지상부가 마른 뒤인 9~10월이 좋다.

○ 정식 : 정식은 지상부가 마른 9월 하순~10월 중순경 하는 것이 좋지만 이른 봄에 심어도 좋다. 이랑폭 60cm, 주간거리 20cm로 하여 2~3줄씩 심는다. 정식 후에는 밭에 건조, 거적 및 차광망 등으로 해가림을 해주어 건조를 막고 제초 및 물관리를 잘 한다. 월동에 들어가기 전 벗짚, 왕겨 또는 부엽토로 덮어서 이른 봄 서리 피해를 막아준다.

#### 다. 시비

비료는 화학비료보다는 유기질비료를 기본으로 사용하지만 양분흡수가 많은 맹아기에는 화학비료를 표층 시비하면 효과가 있다. 시비량이 많으면 싹이 빨리 나오고 잎의 황변기가 늦어져 수확 가능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 퇴비는 10a당 완숙퇴비 3,000kg, 유박, 계분을 각각 100kg, 원예용복비(N-P-K=10:11:11) 50kg 정도를 준다.

#### 라. 병충해 방제

대부분의 파속식물들처럼 병충해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으나 이른 봄 고자리파리가 지체부를 가해하여 고사시키므로 토양살충제와 살충제를 맹아기 직전에 살포해 주어야 한다. 